

다산포럼



김강 미항사 주지 스님

팔팔마을 미항사에 한문학당을 개설하고 아이들을 산사로 불러 모은 지 14년째다. 한 곳에서 자리 지키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산사로 찾아오면 마당을 도는 내 발걸음도 경쾌하다. 벌써 대학생이 되어 연어가 강으로 돌아오듯 인솔교사로 다시 찾아온 이들이 예쁘고 반갑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한문은 당연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말의 약 70% 정도가 한자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자를 공부하고, 문장으로 배우는 것은 깊이 있는 사고를 도와주고, 사물의 연거귀 관계를 익히게 한다.

주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아이들

한문학당 교재로 쓸 ‘수심보경’(修心寶鏡)이라는 책을 편집했는데, 그 속에는 ‘사자소학’의 ‘효행’과 ‘봉우’ 편을 넣어 부모와 친구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심어주는 문장과 ‘법구경’에서 어린이들에 맞춤형 내용을 가려 뽑았다.

역시 아이들은 감동적인 글을 마음으로 좋아한다. 끝으로 ‘명심보감’의 정기편에 있는 ‘마음 다스리는 글’을 가려져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도록 했다.

비유하자면 두터운 돌은 譬如厚石(비여후석) 바람이 능히 옮기지 못하는 것과 같이 風不能移(풍불능의) 슬기로운 사람은 뜻이 무거워 智者意重(지자의중) 비방과 칭찬에도 기울지 않는다. 毀譽不傾(훼예불경)

《법구경(法句經) 17》

산사는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많다. 늘 그 자리에서 맑은 향과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켜고 예불과 참선과 수행으로 내용을

채워온 곳이다. 어느 한 곳이 긴 호흡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또한, 사찰의 전각들은 문 하나 열면 세상과 금세 하나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마음의 문 하나를 열면 타인과 어느새 하나가 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부하는 책이나 강의에서 얻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직접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진짜일 때가 많다.

“스님, 절에는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응, 여기는 공기가 깨끗해 작은 생명들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사는 곳이란다.”  
 절집 주변에는 수많은 나무들과 새들, 곤충들과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 어찌 보면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잠시 공간을 빌려 쓰는 존재에 불과하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사람 중심적 생각을 하는데 산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한문학당 기간에는 부모의 면회나 통신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친척도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 철저하게 독립적인 혼자자 된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부모의 보호 속에 자라다가 혼자서 스님들과 친구들과 산사에서 홀로 지내려면 자신의 모든 안테나를 끈 두세워야 한다.

이때 만나는 새들의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도 생생하고, 하늘의 구름과 저녁노을은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답다. 나무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어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보다 시원하다. 아이들은 함께 지내는 동안 서서히 그것들에 마음을 내주고 동화되어간다.

달마산과 미항사 곳곳을 누비던 아이들이 졸업하고, 집으로 가기 전에 한마디씩 한다. “스님, 8일 동안이나 그림 속에 뛰어들다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감동을 한다. 그 맛에 힘겨운 한문학당을 지극껏 이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우리가 주려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더 많은 것을 배워간다. 그것들은 어딘가 숨어 있다가 아이들을 키우는 비타민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올해는 어떤 얼굴들을 만나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기고

자유학기제, 순항의 닳을 올리며



최선중 청산중학교 교장

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각 교과별로 어떻게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활동과정이나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록해야 한다.

둘째, 진로체험과 관련해 소규모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1학년만 2·3학년과 다른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생겨날 골치 아픈 문제들이다. 현재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1·2·3학년이 함께하지만, 학년에 따라 서로 달릴 경우 지도교사 수업 문제나 시간 운영이 무척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셋째,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중시하나, 도서벽지 학교인 경우 체험학습장을 찾기가 가능하겠는가 문제이다. 마치 사회시설 등의 대외 봉사활동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는 여외로 사정해 가며 봉사활동기관을 찾고, 시설에서 또 학생들이 풀려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직업체험에서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와 더불어 너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과 새로운 용어의 등장

은 학교 현장을 당황하게 만든다.

또 교육전문가와 언론, 학부모들의 열려도 귀 기울일 일이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그동안 우리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 온 학생 중심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든 학생 중심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교육정책들이 현장에서 크게 환영을 못 받고, 여전히 학생들에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교육이 계속된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근본을 바꾸지 않은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지만 바꾸려하지 않았을까?

이제 확실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짧은 이들의 직장 취업에서나 대학입시에서 수능과 같은 고교 성적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 먼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교 규모,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나 진로체험 장소를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학교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 ‘또 뭘 바꾸려고 하지?’ 하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자유학기제가 그동안 교육정책 속에서 계속 추구해 왔고, 현재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교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된다. 연구학교로 지정돼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청산중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일반화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에서 활용할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확립화된 운영을 요구하기보다는 학교별 특색을 살리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

기고

여름휴가는 전남 농촌마을에서



박민수 전남도농업기술원장·농업경제학박사

문화와 청정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농촌 체험, 힐링체험, 전통체험, 교육농장, 미각 여행 등 다양한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농촌마을을 찾으면 운몽으로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곳에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그대로의 자연이 있고, 너른들을 터전으로 한 독특한 문화가 있고, 오랜 세월을 지켜온 역사가 있으며, 곱결한 사투리 한마디에서 인정을 느끼게 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다. 올 여름 도시민들에게 휴가철에 가볼 만한 전남의 농촌마을 몇 곳을 소개한다.

고즈넉한 풀담 사이로 시간도 쉬어가는 담양군 창평면 삼지내마을은 한국전통식품명인회가 만든 궁중 진상품 ‘창평 쌀엿’, ‘창평 쌀엿’으로 만든 ‘창평 한과’ 죽염으로 만든 ‘장류’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이다.

완도군 청산도에 가면 느리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풍습을 접할 수 있고

계단식 다랭이 논과 구들장 논에서 황소에 쟁기를 엮고 트랙터 대신 쟁기질 하는 농업인들을 볼 수 있다. 잡곡가루에 제철 해산물을 곁여 만든 풀떡이 ‘청산도탕’, 해녀의 물질소리가 배어 있는 풋밤, 파래김치를 맛볼 수 있다.

광양시 옥룡면 도선곡사마을에서는 광양의 명물인 매실로 만든 음식 이외도 ‘자녀와 함께하는 과학교리’ ‘좋은 아빠 되기’ 등 재미난 맛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도선선차 체험장에서는 다도예절을 배울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차를 만드는 제다(製茶) 체험도 할 수 있다. 시골외갓집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하늘리마을에서는 그 옛날 우리 건강할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고흥군 포두면 별나로마을은 나로우주센터 입구에 위치하고 해창만간척지 조성으로 대규모 농지와 갯벌을 활용한 풍부한 체험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마을이다.

이외에도 한옥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교육농장, 녹색농촌체험마을, 환경생태마을 등 인터넷과 각종 홍보책자를 통하면 우리 가족을 여름휴가에 딱 맞는 전남의 농촌체험마을들을 찾을 수 있다.

전남경 일반지 전남 농촌에서의 휴가는 진일의 소중함을 알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사고 싶을 수도 있으며 마을별로 목장체험, 농사체험, 요리 체험 등 다른 여행지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마을 앞 고목나무에서 매미 우는 소리를 들으며 냇가에 시원하게 발 담글 수 있는 전남의 농촌마을로 떠나보자.

투박하지만 정겨운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전남 농촌마을로의 초대는 편만한 휴식과 푸근한 결, 신토불이 건강식에 재미있는 체험까지 결합여진 새롭고 특별한 여름휴가가 될 것이다. 요즘은 체험마을 내 숙박시설도 저렴하고 깨끗해서 알뜰하고 실속있는 휴가를 계획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안심맞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본격 여름휴가철 가장 조심할 것은 졸음운전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다. 졸음이 쏟아지면서 잠깐 눈이 감기는 상태로, 운전 중 하품이 나고 눈이 무거워 지거나 운전이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졸음운전의 초기 증상이라 할 수 있다. 더 심해지면 운전을 하다 도로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능력과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운전 중 순간적으로 무운전자 상태가 되어 자동차는 통제 불능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무운전자 상태에서는 운전 중 2~3초만 졸아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는 100m 이상을 진행하게 되어 자칫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너무나 위험하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사망 원인 1위는 졸음운전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매년 2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9로 교통사고 전체 치사율 2.4보다 4배 이상 높으며, 고속도로 사고 중 졸음운전사고 치사율은 15.8로 6배 이상 높다.

특히 졸음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로 음주운전과는 것과 비슷하다는 또 다른 연구결과와는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위험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가장 중요하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옆에 동승자가 있을 때는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말을 걸어주거나 서로 교대운전을 하면 좋으며, 휴게소에 들러 스트레칭을 하거나 차나 음료를 한잔하는 것도 짧은 시간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행이 안전한 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후 운전하는 것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社說

세계수영대회 파문 정치권은 ‘모르쇠’인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주 파문’과 관련, 정부가 예산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계에서 연일 정부가 이승재 차원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강운태 시장도 이를 전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여론은 공문서 위주문제와 수영대회 유치, 성공 개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 하며,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회를 유치했기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계수영선수권의 성공 개최는 광주만이 아닌 국가의 명예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인 해결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지역이 ‘안방’이라는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습이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NLL문제와 국정원 국정조사에 휩쓸려 지역의 최대

현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김영근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유감 표명이 전부이고, 최고위원인 박해자(서구 갑) 의원과 임내현(북구 을) 광주시당위원장이나 정부의 예산지원 불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정부 예산은 여차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우 국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정치권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특히 차기 정권에서 수영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황이 힘들 때나 선거철이 되면 광주를 찾아 ‘민주당 뿌리이자 어머니’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광주가 정작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게 가당한 일인가.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압박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지원을 위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해수욕장 바가지, 공무원이 현장 감시하라

휴가철 전남지역 해수욕장의 고질적인 ‘바가지 상환’이 피서객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전남도와 해당 시·군은 바깥시 시즌이 될 때마다 친절과 친절을 강조하지만 터무니없이 부르는 물건값과 자릿세 등 저질 상환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피서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보 취재 결과, 전남의 한 해변에서는 피서지라는 이유만으로 생수와 커피라면 등 필수품이 시중보다 2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텐트를 칠러치면 여김없이 자릿세를 요구하는가 하면, 숙박시설 가격도 부르는 대로여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기후 온난화로 해변에 해파리 떼들이 달려들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해파리떼를 몰아내는 방제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의를 촉구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게 고작이다.

전남은 서남해에 걸친 아름다운 해변을 지녀 여름 해수욕객을 불러들이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해묵은 상인들의 바가지 횡포가 여전한고, 안전대책이 미흡해 외지인들이 불쾌한 기억을 안고 돌아갈 경우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안전행정부는 29일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예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나 해당 시·군이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상주시켜 불법과 불친절을 강력하게 단속해버리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저질 상환은 여전히 수밖에 없다.

해수욕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눈 앞의 이익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정당한 가격과 친절로 손님들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휴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음해에도 많은 손님을 모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미국 메이저리그 476경기에 출전해 통산 124승98패를 기록한 박찬호는 최근 펠낸 자서전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첫 한국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메이저리그에 있는 동안 ‘한국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나를 따라 다녔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불량일 생기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욕을 먹듯이, 나 또한 한국이 만들어 낸 사람이니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 내 이름은 박찬호 이기도 했고, ‘코리아’이기도 했으니까.”

지난 2001년 6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커리어의 첫 비 백지가 펼쳐졌다. LA 다저스의 박찬호와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김병현이 일전을 벌인 것이다. 선발 박찬호에 맞서 김병현이 7회말 2사 1루 3대3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독특한 투구폼으로 역투했다. 이날 경기는 다저스가 4대3으로 승리했다.

지난 28일 같은 장소에서 류현진(LA

다저스)과 추신수(신시내티 레즈)가 정규 경기에서 처음으로 투타 맞대결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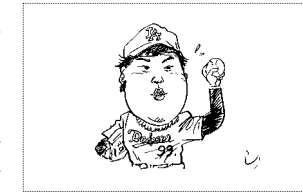
역대 15번째로 벌어진 한국인 투수와 타자 대결에서 류현진은 7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1개만 허용하고, 삼진 9개를 속아내며 상대 강타선을 틀어막았다. 경기 후 형편만 추신수가 “류현진이 기뻐 한국이라는 나라가 욕을 먹듯이, 나 또한 한국이 만들어 낸 사람이니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 내 이름은 박찬호 이기도 했고, ‘코리아’이기도 했으니까.”

최근 독일인 테권도 수련생 8명과 함께 전지 훈련차 모국을 방문한 정선채(63) 판장은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스포츠”라면서 “민간외교 중 가장 큰 민간외교”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메이저리그를 비롯해 해외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열정을 뽐내듯 한다. 정작 이런 모습은 끝없이 이진투구(泥田鬪狗)만 일삼는 여·야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스포츠 한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7-9600) (F A X 227-9500)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제 목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